朝鮮日報

社說

壬辰亂과 忠武公과 民族魂

十一月十九日。三百[illegible]十九年前 壬辰亂末期에 敵이 倉皇히 撤退하는 最後의 一戰 露梁海戰에서 忠武公 李舜臣將軍이 [illegible] 날을 記하고 壬辰亂과 忠武公을 回顧하며 그 때의 民族을 回顧코저 한다。

[illegible]

「서울」市와 江原道 即時再選을 實施

立議一部無効 하-지中將言明

지난十月末日 [illegible] 選擧를 끝내였고 被選된 議員들은 [illegible] 十二月法令百十八號第七條에 依하야 [illegible] 立法議院自體가 [illegible] 「하-지」中將은 [illegible] 江原道의 再選擧를 [illegible]

開院日은 不延期

官選은 二三日內發表

立議에 對하야 公報部와 問答

立法議院民選議員中의 서울特別市 江原道部分을 無效로 하고 再選擧하게 된 것과 官選議員에 對하야 李哲源公報部長과 「뉴ー먼」大佐는 二十五日記者團과 다음과 같은 問答을 하였다

問 이미 選擧되였는가

答 關係各方面에서 推薦된 人物을 사직 「하-지」中將이 檢閱中이다

問 그結果는 언제 發表되는가

答 (李哲源氏) 「하-지」中將에게 開院日에 迫頭해서 發表하게 되면 그 間의 準備를 어떠케 하나고 물었드니 中將은 開院日에 餘裕를 두고 發表[illegible]

問 無效를 宣言한 理由는

答 合委에서 서울 江原道兩地區選出議員은 不正當하다고 建議하였기 때문이다

問 그建議內容은

答 우리로서는 모른다 調査하야 追後發表하겠다

問 지금부터 再選하면 開院豫定日에 [illegible]

答 延期는 絶對로 [illegible]

朝鮮青年黨 結成準備

五青年團代表會合

[illegible] 青年團體를 大同團結시켜 [illegible] 韓青(金泰旭氏外十一名) 全國獨青(李[illegible]) 西北(朴[illegible]) [illegible] 等各團體의 幹部七十二名과 特別傍聽 [illegible] 朝鮮青年黨結黨代表者大會 [illegible]

中國國民大會正式會議

蔣主席主宰下 廿五日開始

【南京二十五日UP發朝通】蔣介石主席主宰下에 國民大會本會議는 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開始 [illegible]

中國憲法內容槪要

【南京廿五日發AP合同】中國最初의 憲法草案은 이미 成案되어 今日(廿五日)國民大會에서 審議할터인데 그大略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一、中國의 最高行政權限은 主席에게 있음

二、主席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며 一次만의 再選을 容認함

三、主席은 全軍(陸海空)의 最高司令官이며 協定締結、戰爭佈告、講和締結의 權限을 保有함

四、中國의 最高代表機關은 國民大會임

五、國民大會는 主席副主席을 選擧하는 同時에 必要할 時에는 解任할 수 있고 또 憲法改正의 權限을 保有함

六、國民大會의 代表任期는 六年으로 함

七、五院制度는 繼續存置함(行政院、立法院、司法院、考試院、監察院)

八、主席、副主席이 空席이 되였을 時에는 行政院長이 主席에 就任함

九、立法院은 法律을 制定하며 立法院의 部員任期는 三年으로 함

十、立法院部員은 (가) 各省代表五名 (나) 三百萬人口以下의 各都市代表五名(但三百萬을 超過하는 都市에는 百萬名에 一名의 代表를 增算함) (다) 蒙古代表八名 (라) 西藏代表八名 (마) 華僑代表十六名으로 構成함

十一、各省은 各省主席을 選出하고 政府는 法定에 違反치 않는 限 各省法定의 權限을 保有함

十二、中國民은 (一) 移動、通信 (二) 信仰 (三) 集合 (四) 言論出版의 四自由를 保有함

十三、人權을 保障함

蘇軍將校入京

二十五日午前一時二十分 第一〇〇二號臨時列車로 北朝鮮서부터 蘇軍將校數名이 京城驛에 到着하였다

毛澤東氏 佳木斯滯在는 疑問

【南京廿五日發AP合同】一部報道에 依하면 毛澤東氏는 佳木斯에 滯在中이라 하는데 [illegible] 延安에 있는 毛氏와 佳木斯間의 交通通路이 容易치 않음 [illegible]

南勞働黨結黨式第二日

南朝鮮勞働黨結黨大會는 第二日은 二十四日午前十一時 [illegible]

中共山東에서 大攻勢

【北京廿四日發AP合同】中央政府側發表에 依하면 中共側은 山東省에서 大規模的攻勢를 取하야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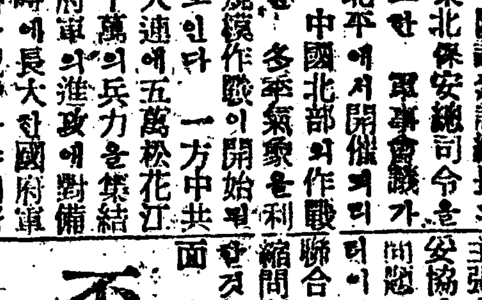
回印兩敎는 同一目的

크國議派議長演說

【메이-롯廿四日發AP合同】印度國民會議派 第五十四回大會는 [illegible]

延安攻擊必至?

【上海二十四日發朝通】延安報道에 依하면 中共側은 中央軍의 延安大包圍에 對하야 [illegible]



「마ー샬」氏 天津에

【天津廿四日發AP合同】美特使 「마ー샬」氏는 廿三日空路夫人同伴休養次로 天津에 到着하였는데 [illegible]

軍縮과 兵力報告問題

美英蘇間意見아직對立

【紐育廿五日發AP合同】UN總會政治委員會에서는 聯合軍兵力情報問題에 對하야 [illegible]

南勞黨에 合黨交涉

社勞黨서 顚末과 態度發表

二十五日 社會勞働黨 [illegible]

否認權制限問題

蘇聯側拒否態度不變

【紐育廿五日發AP合同】現在五大強國間에 否認權을 非常時에만 制限行使할 것을 主張하고 있는 [illegible]

三大統領石炭罷業에 沈默

【푸로비단스二十四日UP發朝通】[illegible]

佛上院選擧도 共黨勝利確實

【巴里廿五日發AP合同】[illegible]

美營림비아莫府事務所閉鎖

【紐育二十二日發共立】蘇聯政府에서는 駐在美國[illegible]

人事消息

△柳[illegible]氏(京城商工會議所會長) △崔[illegible]氏(同副會長) △張[illegible]氏(同) △李世賢氏(同) △張基昌氏(同事務局長) [illegible] 新任人事次來社 △[illegible]韓氏(新韓正論社長) △閔大鎬氏(同副社長) △李炳壽氏(同經理局長) △蔡奎臨氏(同編輯局長) 人事次來社

稀世의偉傑忠武公

陰十一月十九日殉國三四八周年을앞두고

◇忠武公像―(作者未詳)―◇

忠武公略歷

忠武公李舜臣은 字는 汝諧오 本貫은德水니牙山에世居하였다 父는貞이오 母는草溪卞守琳의女이다 仁宗元年三月八日 漢城府乾川洞에서出生 宣祖九年三月武科에及第하였다 宣祖二十四年에 柳成龍의推挽으로全羅左道水軍節度使에 拔擢되었다가 翌年壬辰亂이 이러남에 慶尙左道水軍節度使 元均과같이 防戰에努力했으며 其後 三道水軍統制使를兼하였다고 黨爭의餘波로 褫職되였다가 元均의敗戰後 다시起用되여 倭軍을水上에制禦하다가 宣祖三十一年十一月十九日 露梁海戰에서 五十四歲를一期로戰死하였다 兄弟四人॥羲臣 堯臣 舜臣 禹臣

壬辰倭亂과忠武公

碧初

解放은되었다하나 나라를다시찾고 民族을다시거두어 統一國家를이룩하려고 建國의險路를 더듬고있는우리가 同時에 돌이켜야할것은 우리의歷史이나 우리歷史에서도 苦難의歷史、民族의生存과 發展을爲하야 民族의總力量을 가장크게 가르친歷史를찾아 反省하므로써 이를檢討하고吟味하고 國家와民族再建의 指標로하고 敎訓으로삼을것은 뜻깊은일인것이다 壬辰倭亂七年風塵이야말로 우리國史에 다시없는苦難의記錄이었다 鷄林八道가 거이倭賊의蹂躪을받는 그가운데 다시援軍이었든 明軍의困厄은 限없이컸었다 그러나 이기지 우리朝鮮民族의 根氣있는 民族意識과 鬪爭과創意的戰鬪力은 賊을失敗退敗케하였다. 우리七年亂의苦役을 생각함에 忠武公李舜臣將軍을 追慕케되고 忠武公을通해서 民族의强大한 敎奧를보았고 또 公으로해서 七年風塵中에서 賊의最後를制禦하야 民族을救해낸 그 거룩한偉業은 우리民族史千載에 빛날것은內外史에 昭詳한바이다 十一月十九日 宣祖三十一年戊戌(西紀一五九八年)의이날은 賊이撤軍하는 最後의二戰이 露梁海戰에서 忠武公이賊의 流彈에戰歿하신날이다 距今三百四十九年 바로 그날을앞두고 우리의聖雄忠武公을 追慕코저한다

距今三百五十五年前壬辰에 二十萬倭兵이 우리나라에 侵入하야 八道를 거이다 蹂躪하고 六年後丁酉에 四萬倭兵이 再次侵入하였다가 翌年戊戌에 朝鮮에留屯하였든 倭兵과함께 全部撤退한 前後七年戰役이 우리의 항용말하는 壬辰倭亂이오 李忠武公은 마찰아는바와같이 亂初에 全羅左道水軍節度使오 亂中에 忠淸全羅慶尙三道水軍統制使오 亂後에宣武一等功臣인李舜臣이다 壬辰四月十三日에 倭의先陣이 釜山에 上陸하고 同十八日에 倭의 諸陣이 釜山에集合하고 五月初三日에 倭가 京城에 侵入하였다 四月十八日로부터 五月初三日까지 不過十六日만에 千里길을 突破하고 首都를占領하였으니 이야말로 如入無人之境이라고 形容할밖에없다 倭兵이 이와같이乘勝長驅하게된原因은 여러가지나 그중의重要한것을 들어말하면 첫째 우리나라가 文弱한탓으로 國防計劃이 거이없다시피 空疎하였고 둘째倭는鳥銃을使用하는데 우리는 弓矢로 이를對하야 彼我間兵器의 優劣이顯著하았고 셋째 祖國防衛精神이 우리 全國民에 浸透하지 못하였었다 셋째가重要한 중 가장重要한原因이다 할것이니 少數士族即兩班階級에는 國土가異族에게 蹂躪當하는것을 憤히여기는사람이 많어서 各處에서 義兵을募集하야 敵을 討伐하게되었오나 多數人民即常人階級은 거지반다 國家興亡을 알배없다 全軀保妻子가 上策이라고 오직避亂할생각밖에없었고 公私賤人即 奴隷階級은 外敵侵入을 機會로 싸하고 싸진不平이 一時에爆發하야 利敵行爲까지하였었다 그러나 亂中에 朝廷에서 納粟과 軍功으로 常人에게 仕宦의길을 터주고 公私賤人에게까지 科擧를보이어서 科宦으로 民衆을 懷柔하고 各處에서 擧義한兩班들이 忠義로 民衆을激勵하고 倭兵의 殘忍無道한 가지가지蠻行에 民衆의憤怒가 激發하야 祖國防衛精神이 全國民에浸透되며 곳 擧國一致體勢를 가추게되었었다 壬辰倭亂에明兵의救援이없었더면 나라는 亡하고말았으리라 斷定하는사람도있고 이와反對로 明兵의救援이없었더라도 나라는亡하지않았으리라 主張하는사람도있으니 亂初의土崩瓦解形勢만 가지고말하면 먼저斷定이無理하지안코 亂中의擧國一致體勢를 가지고말하면 나중主張이理勝하다할것이다 壬辰年에 國家를崩壞前一步에서 救한것은 주장水軍의힘이오 水軍이 海上의敵을驅動못하도록制壓한것은 주장李忠武公의일이니 丁酉年에李忠武公과同事하든 明水師提督陳璘이 忠武公을稱頌하되 經天緯地之才가있고 補天浴日之功이있다고하였다 우리歷史뿐아니다 世界歷史를다뒤져도 人格完全한點으로우리忠武公과 比等할英雄은晨星과같이 드물다 이러한 忠武公을當時에는 元均과같은 元兇과도 가치저서 元李라고까지 일커렀다 元均이 비록 水軍의猛將이다할지라도 忠武公에비하면 日月아래 爝火로밖에되지못할것인데 黨人들의 偏見은 이를 分辨하지못하았고 임금宣祖까지도 元均黨의말이 귀에저젓든지 끝끝내 忠武公을元均보다 더낫게녀기지아니하았다 여기서 우리는 偏見이란 엄청난것임을 알수있고 또 偏見이 一時 아무리 무섭더라도 後世公眼을 가리지 못함도 알수있다 壬辰倭亂과李忠武公에 對하야 적을만한일은 勿當時論評多하나 오늘날 우元均黨의反省할資料로는 며생각나는것이 없어고 만져고 끝으로 한가지 부치어적고싶은것은 倭亂에 救援온明將中의 勇力으로 著名한劉綎이 우리朝鮮人의 勇戰奮鬪를 絶讚하야 漢人、倭人은 姑捨하고 生死를 헤아릴줄을 모르는 苗族까지도 朝鮮人은當하지못한다고말하고 回軍할때 우리朝鮮人數十名을隨身軍士로 다려고갔다 우리朝鮮人이 精弱한남어지에도 한번振作만하면 이렇게 突變하였다 이런것을생각하면 우리民族의將來는마음에든든하다

聖雄의卽興二首

「한산섬(閑山島) 달밝은밤에 수루(戍樓)에 혼자앉아 큰 칼옆에 차고 긴파람 하는차에 어대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애를 끊는고」

공이 어느날 달밤에 閑山島 수자리집에서 하염없이 時事를嘆하고 억제할수없는 애타는 심사를 자아내어 읊은時調였다

☆

水國秋光暮 驚寒雁陣高
憂心轉輾夜 殘月照弓刀

水國에 가을빛이 저무니 추위에 놀란기러기 떼만 높이떴다 시름하는 마음으로 잠못이루워 뒤척이는 이밤에 으스름달빛이 활과칼에 빛우이고다 나라를 근심하는 지극한정에서 나온 읊은것이다

壬辰倭亂과 民族意識

李仁榮

民族意識은 民族의存在를 前提로하고 異民族과의 接觸에 依해서 具體化하는것이다 各民族의 民族意識은 特殊性을 가지고있으나 그것은반드시 神聖或은優秀性을 意味하는것은아니다 어떠케보면 民族은 一般的 歷史的인範疇가않이라 特定한時代 卽資本主義 勃興時代의 歷史的範疇로써 封建制의淸算과 資本主義發達過程은 곧民族形成의過程이며 따라서 短期間의過渡的 存在뿐이라고 할는지도모른다 그러나 民族發生에있어서는 人種、言語、風土、經濟、其他文化關係가 複雜微妙하게 共同作用을 하고있는것이니 資本主義勃興以前에 民族은 嚴然히 存在하였으며 現實的民族에 從屬하는個人意識에서 發生하는民族從屬의 自覺으로서의 民族意識은 異民族과의 關聯에있어서 强弱의差를가지고 發顯하는것이다。

朝鮮은 新羅의三國統一以後 大體로民族國家를維持해왔다 그國家로서의 機構는 階級拘束에 依한貴族的 封建的 存在이었든것이나 國內問題로서 階級對立뿐만아니라 같은 支配階級內에 있어서도 士禍와 黨爭이 있었든것은 事實이다 現在아는範圍內에서 본다면 李氏王朝의 王氏高麗朝와의 交代며 李氏王朝時代의 士禍나 黨爭은 亦是現實的經濟關係를 土臺로하는것이었으며 그것은 單只支配階級의 交替支配階級內의 鬪爭이었든것이다 이와같이過去에 있어서의 對內的인 階級對立을둘수있는 同時에 對外的인 民族意識도 異民族侵略에 逢着할때 生活運命의 共同性을 가지고 이옥 强烈히表現된것을 認定할수있을것이다。

壬辰倭亂은 前後七年에 걸친民族的 鬪爭이였다。倭人의 興師理由에 對한學說은 區區하다 或은 豊臣秀吉의 家庭事情或은 秀吉의英雄心理或은 對中貿易說等을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秀吉의 朝鮮侵略은 日本封建貴族勢力의 海外進出의 失敗로結局 秀吉의 朝鮮、中國에 關한知識缺乏에 基因하는것이다。 倭軍十五萬은 釜山에 上陸하야新武器、鳥銃을들고 破竹之勢로 十八日만에 京城을占領하고 다시北進하야 一隊는 平壤을占據하고 一隊는 咸鏡道豆滿江邊에 到達하였다。 우선 戰亂中에 各處官衙에 放火한것은 主로公私奴婢였으며 李忠武公은 反對黨西人의 謀略으로 一時罷免되였으나 忠武公의勇戰이며 義兵、僧兵의蜂起는 오로지그들이屬하는 階級의利益을爲한 그것은 아니였다。倭人의 侵掠이 그全體意思가아니다 오히려그들의意思에 反하야 一封建貴族秀吉과 그一黨의利害에 따라 있었든것은降倭에 關한記錄같은 것으로도 이것을 證明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李地에 倭軍의 侵略으로 現實生活의 破滅、生命의威脅이라는 重大問題에當面한 朝鮮民族은必然的으로 共同團結이 要請되였든것이다。 여기서 朝鮮民族은 階級意識黨派意識을超越하야 먼저民族으로서의 意識을갖게 되며 그갓었든것이다。

이倭亂은 新兵器大砲를 가저온 明軍의後援과倭帥秀吉의 病死로終局을 告하게되였는데 所謂再造藩邦의 功을남기고도 明軍은果然어떠하였던가。 明軍이南下하자 閭巷에 出入하며人財를 劫掠하고 野穀을損傷하야 到處에 百姓이望風奔潰한 事實은李忠武公이 目睹하고 記錄한바이다 倭亂一過後에 남은것은 무엇인가。 民族으로서의意識일것이다。 그러면 이意識은 그後어떠케發展하였는가。 丙子胡亂을겪고 民族意識은 倭人과淸人에 對한 感情과 比例해서 漢族國家明나라에 對한 尊周事大思想으로 轉換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民族意識의 畸形的 現象으로 볼수밖에없는 것이다。 倭亂에 依한 日本의 物質的 直接所得인 朝鮮書籍、活字、陶磁器等은 現在로 日本에 남어있는때 그러한 朝鮮의損失은 亂後에 兵制改革을 爲始하야 大規模倣會通刊行 活字鑄造은 事業으로 일마큼 復遺되였다고 할수있으나 李氏王朝가 存續하는限에있어서 社會制度上 根本的 改革은 보지못하고 黨爭은 黨爭으로서 複雜多端해갔든 것아니다。 그러나 英正時代의 黨爭蕩平氣運과 아울러 倭亂의 文學說話外한 論介、桂月香、金景瑞의 이야기가 流布되며 民族意識을 刺戟하였으며 또 倭亂直後로부터 舊態依然한 社會의狀態에 滿足치않고 新社會、新學風建設을 目標로 하는 一聯의 學者가 차차 輩出하게 되였으니 所謂 實學派에 屬하는 學者들이 大規模로 朱子學의 空疎한理論을 排擊하야 實社會實生活에 基礎를 둔 學理와 社會改革을 論하였는데 代表的學者로서 磻溪隨錄의 著者 柳馨遠을 들수있다 앞으로 朝鮮民族史의 一課題로서 이 實學派研究가 要請되고 있는것이다。 끝으로 原始時代를 除한 全歷史는 階級鬪爭의 歷史인同時에 民族鬪爭의 歷史인것을 附言하여둔다。(完)

嗚呼茲何等時而卿欲去耶 主又何之
卿夫人臣事君有死無貳 當是時也

忠武公의筆蹟
—亂中日記與의一節—

亂世에이聖雄!

李秉岐

武로써 得勢한李氏朝鮮이 前朝高麗朝와다른 政治理念은 國家의百年大計를 文에다둔것이다 한편으로 事大思想이膨湃하야 明에게從屬하게되였다 이런中에도 文만을崇尙한結果로 이方面에는勳業 文章 學者三派가鼎立하야 猛烈한鬪爭을繼續하야 士禍가자주이러낫다 이리하야 武備를全然閑視한 數百年을 보내고 마침내 그것은 東西兩黨派로 갈넜다 이機會를엿보아 北에서는 淸南에서는 日本이虎視耽耽함으로 栗谷先生은南北의 國防을强調하였오나朝廷의 要人들은 그렇게하면 民心만騷亂하다고反對하였다 이는國家的意識이 없이 단지黨派的野心에서 自己勢力만을伸張식히자는것이었든데 이情勢는 마치 今日朝鮮現象을 彷彿케한다 한편 日本은더욱 武力을强化하야 드듸여朝鮮征服을 꾀하고 豊臣秀吉이 明을치겠다 핑계하면서 朝鮮에길을 빌리다하는것을拒絶當하자壬辰四月十六四에十五萬太軍을거느려襲擊하여왔다一瞬에釜山이陷落되고 不過한달만에倭敵은서울에처드러왔든것이다 宣祖大王은義州로 播遷하게됨으로 敵은이를平壤으로까지追擊하여왔다

이렇게國家存亡이岐路에 선危機였을때 忠武公께서는 武科出身으로 數十年間이나 微官末職에서 不遇한歲月을보내다가 多幸히西涯柳成龍의知遇를 얻어 비로소井邑縣監으로나아가 다시全羅左道水使(海防司令官)으로 拔擢되였든것이다。 本營과屬鎭의戰具를修備하고 쇠사슬을만드러 앞바다에건너 防備하였오며 神奇한거북선까지創造하야 敵에待備하면서 壬辰에이르렀다 이때에 倭敵이 來襲하였다는것을알자 公은釜山까지遠路를 쳐가기도하고 南西海岸一帶에 드나드는敵을 따라서매며부시여가는곳마다 燦然한戰勝은 눈부실뿐하였다 때로는 慶尙右道水使元均에게까지援軍을보내서 我軍을 有利하게하였다 公은地域的으로보아左水營(麗水)보다도閑山島를要塞化하야 이를防備하는것이策戰上좋을것이라斷定하고 左水營을옴기여運

(三面에繼續)

新刊敎材案內

英習字 二卷 菊版三十二頁 값十五圓 送二〇〇
PENMANSHIP 好評裡에第二卷이나왔습니다

平等三角法 四六判 百四頁 값三五、〇〇 送二、〇〇
中等敎材로 再版이나왔습니다

社會生活科敎育 四六判 八十四頁 값二〇、〇〇 送二、〇〇
米國O州社會生活科敎授 要 이외이다 佛國民學校長尹在千先生의 譯이외다

글씨첫걸음(上) 四六判 二十二頁 값六、〇〇 送二、〇〇
文盲을退治하자는것은 三千萬의絶對要求이다 農閑期의 男女夜學에 初步의敎材로 再版에 再版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好評의「글씨첫걸음」下卷今月末頃發行됩니다

作文敎本 四六判 百四十頁 값三五、〇〇 送二、〇〇
國民五六學年、中等一、二年의敎材로 再版에 再版을거듭하고 있읍니다 好評

市內及全國有名書店에서販賣합니다

서울市孝悌洞一三〇 敎材刊行 株式會社 文化堂 電話東局⑤一六九六番 振替京城一四四〇七番

求商品
알미늄薄板、스테아링、구리세링、鉛쥬ー부、木蠟、白蠟、베구카도(크림뚜껑)、流動파라핀、세루광내、와세링、도란스油
서울市東大門區崇仁洞一八一番地 (前東光製鍊工場)
大陸化學研究所 電話東局三一四三番

精米工場設計請負
精米機械、精麥機械、唐箕昇降機 諸機械製作、部分品販賣
東振工作所 韓相五
서울市西氷庫驛前(東氷庫) 電話龍山④一三八七

姜秉熙齒科
서울驛前(吉野町入口) 電話本局②八五〇一

天宮神丸
淸凉口藥
本劑의効用
暑疫流行時 吐瀉霍亂時 氣分不好時 疲勞倦怠時 船車旅行時 食前食後
天一製藥株式會社

忠武公의家庭

文敎部編修官 辛東燁

「이충무공의 그 숭고한 [illegible]게 아닐소냐?」 일뿐 위대한 공의 빛나는 한계를 이를 이야기하는 다면 무인(武人)으로보다도 가정을 하고 그가정만 빛나게 하였거니와 충무공의 전생애는 오직 그가정의 훈도에만 빛내기야는 것이 무엇을 관할은 아이었오다 어하간 충무공 여지 가정의 훈은지교를 받았음이 또한 사실인데는 비롯하다! 그러므로 충무공 자손이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었음이다!

그러면 충무공의 아버지는 충무공에게 이렇게 교육하였나! 아버지 이정(李貞)은 역사상에 그다지 이름난이는 아니었지마는 그아들을 무척 사랑하였오니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화로도 짐작할수 있다.

어느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이모양으로 이방안에 있거니와 너는 너 지혜로서 나를 방밖으로 나가게 하고 꿋꿋하 아들 충무공은 잠깐동안 [illegible]하고 있더니 「아버지! 그것은 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밖에 계시면 제가 만드시 방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있겠읍니다」 하였다. 아버지는 이말을 듣고 「네가 정말 그렇게 할수 있는가?」 하자 충무공은 「정녕하고 그만한것을 할수는 있겠읍니다」 이다하여 아버지는 방에서 밖으로 나갔드니 충무공은 이것을 보고는 먹을 차려 「아버지 제가 이겼읍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모양으로 방밖에 계시지 않읍니까?」 하고 몹시 기뻐하매 아버지는 그제야 속은줄 알고 아들과 마주웃으며 「아 참 네가 이겼구나?」 하며 아들의 지혜에 감복하였다 하나와 옛날의 아버지들이라면 다만 점잔만 떼고 엄격(嚴格)하기만 하여 부자(父子)의 사이에 아무런 정미로움도 오래할는 것이 갖게 되므로 인물로 역사 소우하는 데이어도 충무공의 아버지의 이러한 슬픔 이야기는 그렇잖고 엄한 소원하여 부자 사이에 「유—모디스—」한 자애와 인정미가 그득 했으므로는 것이지물 그로 미루어 그가정교육의 는 알에보이는것같으니 일한편 짐작할수있겠다.

다음 어머니는 어떠하였는가? 어머니 변씨부인(卞氏夫人)은 아들 빛을 가지고 쿵어느 아들을 자랑하지 아니한일은 없었지마는 그가운데도 중에 장(?)케 아들 충무공을 몹시 사랑하였으며 아들때 사랑이라 하여도 한갓 아녀자의 그것이 아니고 대의(大義)와 명분(名分)을 잘 분별하였던 이다.

충무공이 한산도(閑山島)에서 왜적(倭賊)을 막고 있을때에 변씨부인은 전라도 순천(順天)에 옮겨와서 계신일이 있었다. 제소부터 효행이 지극한 충무공은 어느때 순풍(順風)을 이용하여 잠간 뵈오러 갔다가 이튿날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행장을 재촉하며 「好赴陣中 大雪國恥」 빨리 군중으로 돌아가서 기필하고 나라의 원수를 갚아다고」 이렇게 두번 세번 순순히 개유하며 조금도 이별을 애끼는 기색이 없었다 하니 이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보통여자 같으면 오래만에 그리던 아들을 만났고 그생자의 전선(前線)에서 활동하는 아들이니 서로 손을 마주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오, 하루 이틀 더 곁에서 보기를 원할 것이며 서로 이별하는 마당에는 울고불고 야단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변씨부인은 이 마음을 억제하였다. 아들은 이미 나라에 받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라의 존망을 두어깨에 진 그 아들이 아니냐?

그후 충무공이 왜장 소서행장(小西行長)의 모략과 우리나라 간신의 참소로 인하여 큰공을 큰 죄로 바꾸어 받고 진중에서 부잡혀와 서울옥에 갇치게 되자 당시 아산향제(牙山鄕第)에 계시던 어머니는 이 너무나 뜻밖에의 소식을 듣고 도 정소에 아들의 충정을 잘 아는 어머니인지라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여 고만 병을 얻어 오게 되었거니와 모진매와 혹독한 형벌을 다겪고 하마 목숨을 변하다가 그때의 정승 정탁(鄭琢)의 구원으로 겨우 풀려나오게 되자 뒤미쳐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충무공은 호천망극의 슬픔을 금치 못하여 향제에 달려가서 영전에 통곡하며

「竭忠於國 而罪已至 欲孝於親 而親亦亡」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거늘 죄를 이미 받았고 어버이에게나 효도하려 하였더니 어버이 또한 떠났구나!」

하였으매 듣는자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이가 없었다 하거니와 충무공은 나라의 일이 원악급한지라 겨우 성복(成服)을 마치고 곧 전지(戰地)로 향하여 길을 떠났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그 다음 부인은 또 어떠하였는가? 충무공의 부인 방씨(方氏)는 보성군수(寶城郡守) 방진(方震)의 딸로서 충무공을 도와 좋은 내조자(內助者)가 되었거니와 해방부인은 어려서부터 기민하고 재주가 있어 처녀가 되기 전에 벌써 어진 소문이 높이 났다.

열두살 때에 어느날 밤 자기 화적(火賊)이 내정에 침입하여 분탕을 치려하자 아버지 방군수가 내다 화살을 쏘아 적을 쫓다가 화살이 다하매 형세는 더욱 위급하매 방안에 있는 살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쳤으나 이때 집안 계집종들은 벌써 적과 내통하고 화살을 숨겨 미리 모도 거기에는 한개의 살도 없었다.

열두살밖에 되지 않은 방씨부인은 그순간 기민하게 꾀를 내어 소리를 해 대답하며 《화살 여기 있읍니다》 하고 급히 베짜는데 쓰는 대(竹)한아름을 안아다가 다락위에서 던지니 그소리가 마치 화살을 쏟는것 같았음에 화적들은 본디부터 방군수가 활 잘쏘는줄 알고 또 이 화살이 그와같이 아직 많이 남은줄로 속아 알고 고만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다.

충무공이 국가중흥(中興)의 큰공을 세우고 선조(宣祖) 무술(戊戌) 十一월 十九일 남해노량(南海露梁) 싸움에 원통하게도 왜적의 탄환에 맞아 五十四세를 일기로 장렬한 전사를 하자 조정에서는 충무공의 큰 공을 사모하여 방씨부인에게 정경부인(貞敬夫人)을 봉하여 주었거니와 [illegible]통제사(統制使) 이운룡(李雲龍)이 전날 충무공의 부하였던 관계로 자당에 뵈오려하여 오는도중 위의(威儀)를 갖추고 먼저 문안에 단을 부인에게 드렸으나 부인은 받지아니하며 말을 전하기를

《군대의 규율이란 지엄한 것이니 비록 생사의 길이 따로다 비록 지언정 체모(體貌)야 달 무엇이 틀릴 것이 있겠읍니까? 가옹(家翁=남편)의 사랑이 지척의 자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며 아무 거침없이 먹질은 너무 미안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하매 이통제는 그제야 자기가 실수함을 깨닫고 자파한 뒤에 부인은 비로소 그예단을 받았다 하니 이만하면 방씨부인의 제반 범절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끝으로 충무공 자신도 좋은 부형(父兄)이오 좋은 남편이었다. 공의 두형 희신(羲臣)과 요신(堯臣)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조카들이 이 모두 번째 부인에게 의탁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충무공이 다 이들을 양육(養育)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었다.

충무공이 일찍이 정읍현감(井邑縣監)이 되어 부임의 길을 떠날때에 [illegible] 번째부인을 따라갈 [illegible] 사람이 너무 많이 데리고 감을 비난하자 충무공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가 그런 비난을 받을지언정 잔아의 의탁할 곳없는 어린것들을 놓아두고 갈 수 없다》

하였으며 [illegible] 이름을 [illegible] 지었으며 충무공은 끝내 그 조카 아들을 친자 자기가 소생한 아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게 하였으며 장가 시집 보내는 것도 반드시 조카들을 먼저 하고 자기의 아들딸은 뒤에 하였다. 충무공이 통제사로 있을때에 중죄(重罪)를 범한 죄인 한 사람이 잡혀오자 여러 자제(子弟)들이 곁에 있다가

「이 사람은 죄가 무거우니 만치 중한 형벌을 주어야 하겠읍니다」 하자 충무공은 천천히 말하기를

「형벌이란 따로 법이 있는 것이니 남의 말로 인해 경중(輕重)을 말할 것이 아닙니다」

하며 다시 말을 이어 「爲子弟之道 當以生道救之 不可以重刑請也 ─ 남의 자제된 도리에 마땅히 살리는 도리로서 구원할것이오 중형으로 청함은 옳지 못합니다」 하였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교훈인가?

그러고 충무공은 七년 풍진(風塵)에 진중생활로서는 자못 고적(孤寂)을 느낄때도 있었으니 「水國秋光暮 驚寒雁陣高 憂心轉輾夜 殘月照弓刀」라 한 시와 이외에 한산도에서 읊은 시조를 보아 짐작할수 있거니와 그러나 충무공은 이러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오직 한마음은 나라일에 있을 뿐이오 일찍이 한번도 여색(女色)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가장(家長)의 도에 있어서도 만인의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 이 외에 [illegible] 그 아들들의 이름을 회(薈)、[illegible]、완(莞)、분(芬)으로 지어 봉상(鳳祥)이 역시 다 애국자(愛國者)로서 이름이 높았던 것이다. (끝)

☆☆☆☆ 倭人異人이본李舜臣 ☆☆☆☆

秀吉에死刑宣告

(前略) 아一戰(閑山島水戰)은 朝鮮에 있어서의 「사라미스」海戰이다고 말해도 過言이 아니다 (「사라미스」海戰이란 希臘艦隊가 波斯艦隊를 打破하야 이때문에 波斯大軍의 來襲을 擊退하게 된 西洋上古史中有名한 海戰) 이것이 秀吉의 朝鮮侵略에 向해서 死刑의 宣告를 내린것이다 이것이 秀吉의 大企圖인 支那征服의 壯志를 挫折시켰다 爾來戰爭은 數年에 걸쳐 끌었오나 그것은 오직 秀吉의 失望을 緩和코저한데 불과했다 (「구로노모 日本史」에 所載된 필리-브란자먼의 海戰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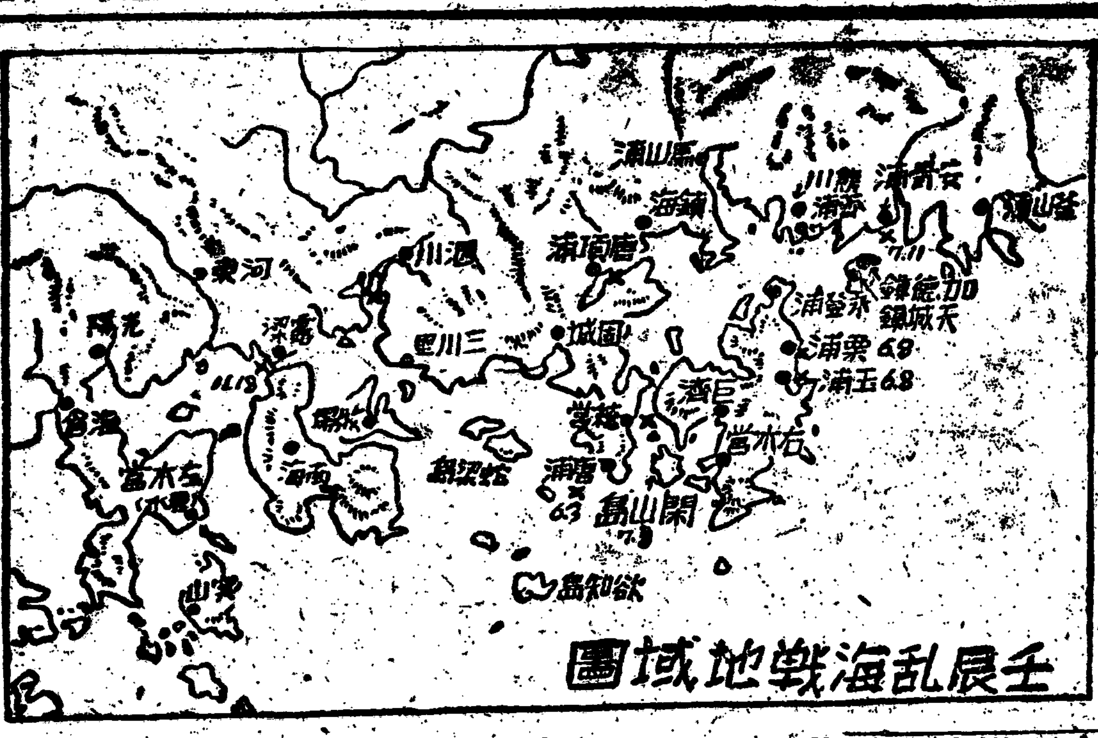
克而死요 死而克

(前略) 李舜臣의 死는 마치 「넬손」의 死와 같다 ─ 그는 이기고 죽었고 죽[illegible] 壬辰役七年間 朝鮮陣에는 鍊士、辯士、文士의 類가 많았다 허나 戰爭에 있어서는 참으로 한사람의 李舜臣으로써 그 자랑을 삼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日本의 水軍諸將도 드디어 李舜臣에 向해서는 그의 生前에 그 뜻을 펴지 못했다 그는 實로 朝鮮役에 있어서 朝鮮의 英雄일 뿐아니라 또한 三國을 通해서의 英雄의 하나이였다 (德富蘇峰의「近世日本國民史」中에서)

不死의千古雄魂

(前略) 當時 英國을 保護하야 拿翁(나폴레온)의 戰慮를 [illegible]에 이르지 않게 한것은 英國의 舜臣 其人의 功業이니 朝鮮을 防禦하야 國運의 頹唐을 挽回한것은 實로 朝鮮의 「넬손」 其人의 雄略이다 아니랄수 없다 舜臣의 功 어찌 거룩지 아니할까보냐。 오직 이뿐만 아니로다 舜臣이 最後의 戰에 있어 水軍司令官의 士氣가 [illegible]하야 死[illegible]지 않은 事實을 記하면 千八百五年十月廿一日 「넬손」의 「트라팔가」海頭에서 負傷하야 流血淋漓中에 누어서도 오히려 戰狀을 顧慮한 것과 거의 符節이 合함과 같다。 兩雄終始의 性行이 相類함이 이에 이르니 또한 奇異하지 않을소냐。 嗚呼라 順天의 남 左水營城의 佛山碧水가 푸른데 一個가 있어 巍然히 天半에 소사 자랑디 倫敦城中 「차-링크로스」의 銅標와 서로 揭映하야 千古雄魂의 不死를 表하고 있다 兩雄이 죽었으나 遺憾이 없다 하리로다 (이글은 明治廿五年日本偕行社에서 發行한 陸軍步兵大尉 柴山尙則著의 「朝鮮李舜臣傳」의 一節이다)

鬼刀 [illegible] 佩劍이었다 날이 양쪽이며 길이는 二尺七寸五分、자루에는 龍머리를 새겼고 그입에 鬼母를 물렸으며 鬼母의 머리밑에 鬼子가 있어 마디는 龍의 이빨을 잡고 손은 鬼母의 귀를 잡고 있다 全長이 四尺四寸五分。



壬辰乱海戰地域圖

世界海戰史에燦然한 閑山·露梁兩水戰

壬辰亂의 海戰中 우리公과 「넬손」의 最後殲에게뿐 아니라 世界史的間의 恰似한것等 實로 滅을 가져온 二大海戰이 後人의 感銘이 깊은바이으니 하나는 閑山島前洋海戰으로 戰局에 重大한 影響을 끼친點으로 보아 西紀前四八〇年 希波戰爭時의 「살라미스」海戰에 比할만한 것이오 또하나는 露梁海戰이니 敵에게 最後一擊을 加하는 同時 忠武公自身도 殉國한 情形이 西紀一八〇五年 佛西聯合艦隊와 英艦隊間의 「트라팔가」海戰에 彷彿하여 「넬손」이 戰死[illegible]

閑山洋海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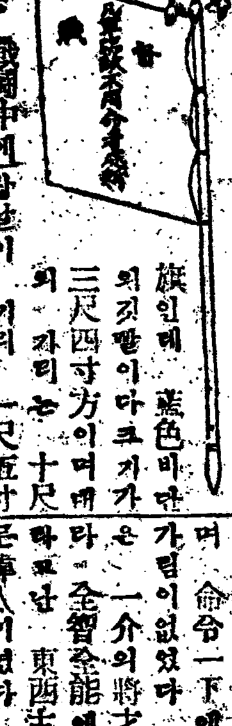
壬辰五月의 玉浦海戰과 五月末六月初의 唐浦海戰에 勝利를 어든後 公은 一時歸營休軍하였다가 七月六日 全羅右水使李億祺와 慶尙右水使元均等과 露梁에서 相會하였는데 때마침 倭船七十餘隻이 見乃梁에 留泊中이란 情報를 듣고 七月八日은 公船舶을 보내어 敵情을 探知한 結果 大船三十六隻 中船十四隻 小船十三隻이 見乃梁에 結陣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나 그곳 地形은 狹險하야 戰船操縱이 自由롭지 못하겠음으로 먼저 倭軍船을 閑山島前洋으로 誘出할 計劃을 하였다 그리하야 먼저 攻擊하다가 假敗하여 나온즉 果然 彼等은 我軍을 따라 洋中으로 進出하매 公은 船隊를 鶴翼形으로 陣치어가지고 一齊히 倭船을 迎擊하야 地字、玄字、勝字等火砲로 先頭의 敵船二三隻을 擊破하여 倭船이 後退를 開始할에 我軍이 乘勢突進하야 거이 全滅시키다 싶이 하였는데 이때 擊滅한 敵船이 六十三隻이요 逃走한것이 十隻에 不過하였다

翌九日에는 安骨浦에 倭船四十餘隻이 留泊한다는 것을 探知하고 六月十日早朝 安骨浦에 到着한즉 果然 倭船四十二隻이 留泊中인데 이곳地勢도 亦是 淺狹하야 大船의 行動이 自由롭지 못하므로 先運船等을 洋中으로 誘出하야 焚破하고 港內에 結陣하고 있는 殘餘倭船은 浦口로 進擊하야 近接戰으로 그 全部를 擊滅하였다

露梁海戰

戊戌八月 秀吉의 死後十一月에 倭軍이 撤歸를 開始한後의 海戰이니 우리의 骨髓에 찬 國民的 怨恨은 彼等의 撤去를 그양 容許할수 없는 것이였다 忠武公은 彼等에 攻擊을 加키를 明將陳璘에게 强硬히 主張하야 我軍은 明軍과 같이 島浦間에 待機하고 있었는데 十一月十八日에야 露梁海上에서 倭船과 遭遇하게 되였다 이때 倭船五百餘隻이 光州洋으로부터 到着하자 伏在했든 我軍이 左右로 挾擊하니 敵船은 支持하지 못하고 觀音洲港口로 물러갔오나 歸路를 遮斷當한 그들은 決死의 抗戰을 繼續하야 忠武公乘船과 陳璘乘船을 包圍하므로 明我兩軍이 相互救援하든 中 飛彈이 公의 左腋에 마저 殞命하게 될때 公은 「戰爭이 方今急하니 나 죽은것을 말치말다」 하고 防牌로써 自己몸을 가리우고 最後를 마치었다 部下는 公의 死喪을 發表치 않고 더욱 督戰하야 午에 이르러 敵軍을 大破하야 船隻은 燒破되고 敵兵은 溺死燒死하야 남은바 많지 못하였다 敵將島津義弘은 不過五十隻의 船艘를 거느리고 愴惶히 脫走하였으니 이 海戰亦是 우리의 一方的 勝利로 終局을 告한것이다

어린이를 爲한 歷史小說
朴泰遠作 · 金基昶畵
李舜臣將軍
週刊小學生 33號부터連載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



督戰旗 戰鬪中에 司令官이 타고있는 戰船에 세우는 旗인데 藍色비단의 깃발이다 크기가 三尺四寸方이며 대의 자리는 十尺 [illegible] 一尺五寸 그아래에 紅毛와 朱絲纓 이 三條는 드리워있다

(二面에서의 繼續)

籌堂을 떠나시고 밤에도 갑옷 벗지 않으시고 不眠不休 매사 군과 兵卒까지를 [illegible] 戰術을 議論하야 싸움에 對하였다 이렇게 四年이나 激戰하였는데 한번도 敗한일이 없이 天下無敵을 자랑하게 되니 이 功勳은 勿論 朝廷에 알려졌다 그러나 元均은 公의 武勳을 猜忌하야 機會만 있으면 害칠라고 劃策하고 있었다 한쪽으로 倭軍은 公에게 正面衝突할 自信이 없는 까닭으로 한 奸策으로 要時羅라는 密偵을 우리軍에 보내여 「日本은 戰意가 없으나 加藤淸正만이 혼자 싸우자고 固執하므로 日本은 加藤을 죽일 터이니 朝廷에서 密旨를 보내 加藤[illegible] 이 있는곳까지 密告하였으나 謀略으로 看破한 公은 朝廷의 命에 應치 않고 出動도 아니하였다 [illegible] 朝廷은 倭敵의 [illegible] 公을 逆[illegible]을 띠고 元均을 公의 자리에 올려앉히었다 元均은 三道水軍統制使(統[illegible] 高司令官)에 昇進되자 忠武公이 創設하신 運籌堂에 [illegible] 酒色에 빠져서 [illegible]

[illegible] 와서 거북선까지 부서지고 元均은 敵에게 잡혀서 죽고 要害[illegible]은 敵에게 넘어가고 海軍戰勢가 極히 不利하게 되었다 國事가 하도 危急하고 公이 罪없는것을 알게된 朝廷에서는 公을 釋放하야 다시 戰地에 보내게 되었다 公이 出陣하였을 때에는 그동안 元均의 亂行으로 軍使도 흩어지고 軍備施設도 없었으나 公의 德을 欽慕하야 軍兵이 千名 감이 모여들어 一致結束한 十三隻 軍船만으로 저를 어운 無數한 倭軍戰船을 한꺼번에 擊滅시켰다 이에 元氣百倍한 我軍은 破竹之勢로 敵을 쳐부시어 한[illegible]도 이쪽에 接近치 못하게 하였는데 노량(露梁津)에서 敵을 마지하게 되여 몇칠이나 連戰連勝하시는中에 公은 不幸히도 敵丸에 마저 음력十一月十九日 五十四歲를 一期로 壯烈한 戰死를 하시었다 戰場에서 臨終하실때에 姪을 불르시어 自己의 戰死를 發表하지 말라고 遺言하신것은 我軍의 士氣가 阻喪될까하야 끝까지 念慮하신것이였다。 이리하야 우리는 倭敵을 再起못하도록 徹底하게 擊破하야 이땅에서 쫓차버린것이다。 七年동안이나 軍糧과 軍使를 湖南地方에서 自給自足하게 하시고 [illegible]에까지 [illegible] 援兵한 公의 功勳도 크거니와 이外에도 헤아릴수 없을만치 偉德이 많음에 公은 戰略에 能할뿐더러 外交에도 능란하시어 中國에서 온 將校들도 心腹의 자랑으로 만드시어 感化시킨 일도 있다 非戰時에는 軍糧增産에 努力을 아끼지 아니하시었다 七年동안을 公文 詩와 日記를 綴輯하고 絕對로 女人을 멀리하야 誠至德에 軍卒을 다하시여 公을 父母처럼 섬기게 되며 命令一下에 水火를 가림이 없었다 이렇듯 公은 一介의 將才뿐만 아니라 全智全能에 聖賢을 [illegible] 東西古今에 드문 偉人이였다 (文責在記者)

서울市長을普選
代議員改選施行도「린」中佐言明

英書語館을 文化圖書館設置

二월五일 공보부장의 발표를 보면 장차설치될 영어문화도서관(英語文化圖書館)에 진열할 서적의 일부분이 미국으로부터 도착되었다고 한다 이 영어문화도서관은 … 영어를 해독하는 조선사람을 위하여 되리라 한다

李舟河氏 27日公判

일시 행방이 묘연하였던 … 이주하(李舟河)씨에 대한 제일회공판은 二十七일 오전 … 이천상(李天相) 판사주심으로 개정 …

美警察官吏到着

韓中文化協會發足

한중문화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자 … 한중문화협회(韓中文化協會) 결성식을 거행하였는데 동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理事長 李始榮 ▲副理事長 鄭寅普 徐世忠 ▲常務理事 李相殷 尹錫五 宋志英 ▲理事 [illegible]德 李範奭 丁來赤 安偶生 外十五名 監事 高[illegible]東 外三名

요리값……一人當四百圓上

南朝鮮勞働黨結黨式에不祥事
新聞記者二名이重輕傷

二十四일 서울시 시천교당(侍天敎堂)에서 개최된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働黨) 결당대회장에 …

建國民友靑年會、獨靑과合同決議

北靑一週記念式

工業博覽會延期

「테로」根絶시키라
―第一警務總監府에決議文提出―

侍天敎手榴彈事件

法曹記者會도 決議文을提出

決議文

張總監의答辯書

峻嚴히處斷 李檢事總長談

一貫한命令系統을樹立
―健全한發展計劃만이急先務―

建國의道程 (3)

朴對郭拳闘成績

▲미들級 ○金泳鎬(MY)金[illegible](友) ▲라이트級 ○郭昌善(MY)姜攻成(MY) ▲웰터級 ○吳泰根(MY)李重植(MY) ▲페더級 ○金泰奧(川仁)崔炳翔(MY) ▲밴담級 ○韓相龍(MY)朴昌敏(MY)

親切警官表彰
首都廳記者會서

靑山里싸움 (31)

朴[illegible] 記

新刊紹介

▲農民醫報 … 市中區舟橋洞三一三 農民醫報社發行 定價十圓

日氣豫報

北西風이불고 晴天이되겠다

曆

廿六日(火曜) 陰十一月初三日 干支 甲辰
▲日出 午前七時二三分 ▲日入 午後五時一八分 ▲月出 午前九時三三分 ▲月入 午後六時五九分

放送

[晝] 一一·○○ 幼兒時間 … [夜] 五·○○ 日用品時勢 ▲五·三○ 어린이 ▲六·○○ 成人數 ▲七·一五 政黨時間 ▲七·三○ 民主主義講演 ▲七·四五 歌謠 ▲八·○○ 放送舞臺

肺患 全快者續出!! 最後死境者도短期에回生의길있다 絶對責任根治 速히問議하시라 서울市藥園洞二○九 共信藥房

阿片中毒治療 서울市乙支路四街(黃金町)一五五

科眼形整 耳鼻咽喉科 醫院 院長 簡正敏

百中華 서울市蓬萊洞一街二○ 三新堂製菓社

男女外勤社員採用 朝鮮生命保險

化粧品部 大昌洋行

糖蔘 東和百和店 一層物產部

特製 巢蜜 朝鮮蜂蜜商會

地方代理店募集 特約店 特効藥 기침 뿌로고징液 Solusion Procotin 新藥 感冒·氣管枝·肺炎·百日咳·氣管喘息等에伴한咳嗽 生產品目 壽福藥品公司